

#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축제 성료

## 제24회 농업인의 날 행사도 병행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축제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무주를 예체문화관 주차장(특설무대) 일원에서 개최됐다.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주관하고 NH농협 무주군지부와 무주군 산립조합, 무주농협, 구천동 농협 및 농업인 단체 등이 후원한 가운데 개막식과 군민화합 퍼포먼스, 농업인 장기자랑, 농산물 즉석 경매·게임, 문화예술 공연 등이 개최됐다. 2일 열린 개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출향인들과 도시소비자, 무주군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를 전복식(57)씨와 부남면 심미순(56)씨, 안성면 이규홍(58)씨, 적상면 박천우(51)씨, 무풍면 이정선(58)씨, 무풍면 박희봉(47)씨, 설천면 이현미 씨(35)씨, 안성면

이광복(69)씨가 우수 농업인으로 선정돼 군수 표창을 받았다. 친환경 농·특산물 품평회 대상은 안성면 이상오(67)씨가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부남면 이현승(51)씨가 최우수상을, 설천면 박희채(78)씨가 우수상을, 안성면 문종태(68)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 농특산물 품평회에서는 적상면 고경만(73)씨가 대상을, 무주를 김병욱(68)씨가 최우수상을, 무주를 정영관(60)씨와 무풍면 강영순(60)씨, 안성면 박대식(68)씨 우수상을 받았다. 무주를 양순덕(63)씨와 설천면 김기숙(62)씨, 부남면 민광만(60)씨는 장려상의 주인공이 됐다. 행사장에는 품평회 수상 농가들이 출품한 농·특산물 전시대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으며 기능성 버섯전시와 시음,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장도 운영돼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지역과 도시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보람이

농업인 여러분의 사기와 반딧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지향하는 무주농업의 진심을 담아 마련한 자리이니 만큼 팔려 나온 농업인이나 사러 오신 소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흐뭇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어서는 5백 가래떡을 자르는 군민화합 퍼포먼스와 농업인 장기자랑, 생활문화예술동호회(통기타, 설장구, 색소폰, 밴드, 난타 등)가 진행하는 문화예술 공연, 농기계 전시와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향토 먹거리 장터를 비롯한 간식먹거리 부스 반딧불 한우 무료 시식회도 마련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건강체험관과 마을로 가는 축제 홍보관 등도 운영돼 발길을 끌었다. 도시소비자 서모(62, 대전)씨는 "해마다 사과며 쌀, 감장겨리들을 무주 걸로 사서 먹고 있다가 축제 소식을 듣고 오게 됐다"라며 "불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체육회장, 12월12일 대의원 투표

### 후보자 1000만원 기탁금 내야

진안군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12일 진안군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진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종하)는 지난달 30일에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9시 후보자 소견발표 후 오전 12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35명의 대의원 선거인단이 체육회장을 뽑는다. 종목단체 회장과 읍·면 체육회장이 대의원이다. 후보자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하면 체육회에 귀속된다. 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나 예외

적으로 초대회장의 임기는 3년이고 민간 체육회장은 내년 1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선거일정으로 ▲16일 후보자, 체육회 임원사퇴 ▲26~27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사본 교부신청, ▲12월 1~2일 후보자 등록신청·기탁금, ▲12월 2일 선거인 명부확정, ▲12월 3~12일 선거운동기간(10일간), ▲12월 10~11일 투·개표참관인 신고 등이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국에서 실시되며 체육회의 자율성과 자치권 강화가 목적이다. 자세한 선거일정과 선거관리 규정은 진안홈페이지와 진안군체육회(☎ 433-5010)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신달자 시인 초청 특강

진안군은 지난 1일 군청 강당에서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신달자 시인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여류 시인이자 수필가, 소설가인 신 작가는 거창에서 출생해 197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석정시문학상(2019)', '정지용문학상(2016)', '대산문학상(2011)' 등을 수상했으며, 2012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종이', '북촌', '간절함' 등이 있으며, 수필집 '나는 마흔에 생의 길을 마를 배웠다'와 장편소설 '물 위를 걷는 여자'의 다수가 있다. 신달자 시인은 이날 특강에서 '소통이 안되면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작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제시하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할인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제 307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정복 위원장(장수 나산거구)이 발의한 '장수군 다자녀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결의됨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등을 30~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 시설은 장수누리리조트의



수영장과 헬스장, 스키레저파크의 게르 및 아영장, 장계 대곡 관광지 숙박시설, 와룡·방화동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5종), 숙박시설 및 방화동 가족휴가촌 아영장 및 기타시설, 장수누리리조트 오토캠핑장과 작은목욕탕(장수읍, 산서면 운영) 등 총 7곳이다. 숙박시설 이용 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이용료 등의 50%를, 두 자녀 이상 가정은 30%를 감경하며 그 밖의 시설의 경우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다만 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통합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 운영에 대한 충분한 준비 단계를 감안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장정복 의원은 "전국적인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장수군의 경우 앞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체적인 인구 대책과 함께 중앙의 통합적인 법률·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본 조례의 제정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배려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11월 월례조회가 지난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무주군 11월 월례조회 개최

### 홍수빈 씨 등 4명 우수공무원 표창

무주군 11월 월례조회가 지난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2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홍수빈 주무관과 맑은 물 사업소 강영강 주무관, 적상면 이종원 주무관, 무주읍의 김선영 주무관이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돼 군수표창을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관습과 습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행

정을 펼쳐 나가자"라며 "지난 10개월간의 노력이 12월 풍성한 결실로 거둬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11월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확보 철저를 비롯해 통절기 대비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점검 및 지원, 산불예방, 공공비축 미곡 수매,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은 기획재정부 하진 서기관으로부터 예산과징 및 정부예산 관련 주요 제도, 예산확보를 위한 주요전략, 신규사업 발굴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 성료

제15회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가 지난 2일과 3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해까지 웰빙태권도제 및 시범페스티벌로 개최되던 것으로, 태권도경기 무주를 알리고 대회발전을 주도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를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2일 열린 개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우석대학교 서지연 부총장을 비롯한 선수와 지도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무주를 무대로 한 태권도축제가 오랜 세월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 또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 대회가 태권도의 고장 무주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 태권도원이 대화와 함께 명성과 위상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회는 태권도제조와 개인종합경연, 시범경연 부문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성인들이 참가해 태권도 기본동작과 창작품새, 격파, 호신술 등 다양한 경기 모습을 선보였다. 참가선수 김 모 학생(16세, 대구)은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는 다른 대회들과는 분위기가, 운영 등에서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라며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긴장은 되지만 즐기면서 재미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어 몇 년째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 개선, 발전방향 주민 공청회

진안군과 쓰레기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진안군문화체육회관에서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 개선·발전방향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최성용 군수권한대행, 안호영 국회의원, 신갑수 군의회의장

을 비롯한 군의원, 정지원 매립장반대투쟁위원장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 관, 경이 함께 개선·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진안군과 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다.

식순은 대책위와 진안군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하고 주민들의 질의응답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진안군은 공청회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서 건의해온 비위생 매립지 잔여쓰레기 이적문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시행제도 개선 등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